

寫本을 對照하여 보면 本榻에 보이는 文句가 寫本文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한 둘에 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本榻에만 보이는 文句로서 『稽首拜手再拜而言曰』 『先師入滅 忽忽六七年』 등을 指摘할 수가 있는 것이다.

手再拜而言曰』이라던가 또는 『先師入滅 云云』의 文句는 閱漬의 撰文에 들어있을 性質의 것이 아니요 一然禪師의 門徒의 말인듯 한바 이러한 文句가 閱漬의 撰文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또한 當然한 일이라 할 것이다. 생각컨대 本榻에는 本來 月精寺 寫本에나 또는 金石總覽 類에 收錄되지 못한 어떠한 部分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의 심되는 바이다. 아마도 碑陰에 立碑의 緣起를 적은 一然禪師의 門徒의 跋銘(安立事跡記)이 따로히 새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만일 이러한 臆測이 許容된다면 麟角寺碑에 있어 새로운 問題가 提起되는 셈이라 할 것이다.

麟角寺碑는 現在도 慶北 軍威의 麟角寺에 있는 바 碑身이 斷折, 毀損되고 刻字가 剝蝕, 磨泐되어 若干의 남아있는 글자도 거의 判讀이 어려울 程度이다. 本榻가 이와같이 된 것도 壬亂의 倭禍를 입은 까닭이니 拙藏 麟角寺碑榻의 龍門居士(尹光周)序에

世稱麟角碑 王右軍眞蹟 麟角 新羅寺也 右軍書 最稱三藏帖 而麟角獨

傳其眞 蓋新羅 於右軍 其代近(龍門이 本碑를 新羅의 것으로 본 것은 錯誤인) 得眞品 移於碑 故有名於世 餘癖於筆 求之勤 未得置諸心 每歎 二請邑嶺者 周歲 乃得一覽 宛然右軍之妙法近 所稱三藏帖 亦盡下風也 噫 壬辰之亂 島夷見此碑 曰不意右軍眞蹟 復覩于此 爭印之時 多火而 印什之地 其後剝落 略有字片 片亦剝缺 無眞而嗟乎 禍於倭 何其酷也 然其言曰 右軍眞蹟 抑亦知妙法者乎 此獨傳其眞者歟

崇禎紀元後辛巳(肅宗 二十七年)歲

龍門居士 書于澹然堂中 并序

라한 것으로서 本榻가 壬亂때에 倭兵에 依하여 倒什되어 字面의 剝落을 이르게 된 緣由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本榻을 가리켜 『此獨傳其眞者歟』라 한 것으로 보면 龍門도 이것을 壬亂以前の 完榻으로 보았던 듯하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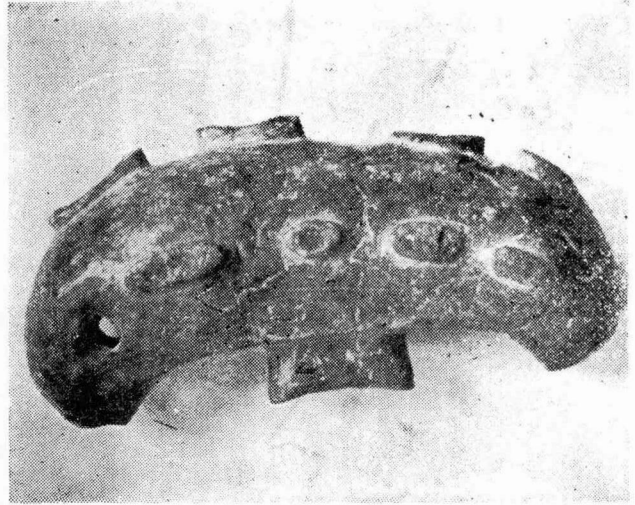
① 劉喜海(號는 燕庭)의 海東金石苑 題辭에 『鑿藏麟角 碎金 集右軍之書 新羅鑿藏寺碑 高麗麟角寺碑 晉王右軍行書 頗具典型 俱集』이라 하였음

② 大東金石書 所收 本碑 榻本의 字數는 一九三이요 金石清玩 所收 本碑 榻片의 字數는 一六八이며 朝鮮金石總覽에 收錄된 것이 三六八個字이다. 劉燕庭의 海東金石苑 題辭에도 上記한 바와 같이 本碑가 收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淸·文宗 咸豐十年(哲宗十年 西紀一八六〇) 英佛聯合軍의 北京攻陷때에 燕庭의 原稿本이 遺失되어 겨우 前半部의 抄稿本 四卷만이 印行되었으므로 後半部에 屬한 本碑文도 漏落케 된 것이다. 그러므로 燕庭에게 傳해진 本碑의 榻本에 는 果然 몇 字가 缺하였는지 지금에 있어서는 알 길이 없다.

扶餘 軍守里出土 滑石製 母子曲玉

金 元 龍

지난 八月에 서울大學校文理大 史學科의 一學生이 扶餘에서 拾得하였



다는 滑石製母子曲玉一個를 大學博物館으로 寄贈하여 왔다. 이러한 母子曲玉은 日本에서는 許多히 發見되는 바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最初의 예이며 그것이 다른 곳 아닌 扶餘에서 出土되었다는 것은 興味있고도 意義있는 事實이 아닐 수 없다. 여기 紹介하려는 曲玉이 出土된 곳은 扶餘軍守里며 學生의 말에 依하면 軍守里에 있는 自己집 附近 밭에서 同生이 죽어 온 것이라고 하며 至今 仔細한 것을 알 수 없으나 밭에 어떠한 遺構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저 單獨 分離되어 出土한 것 같다.

이 曲玉은 白綠色의 滑石을 깎아 꼬리를 下向시킨 魚形과 같은 形態로 만든 것이며 金屬刃器로 彫刻하고 表面을 研磨한 것인데 表面은 平滑하지 않고 刀痕이 歷然히 남아 있다. 曲玉의 兩側面에는 各 四個씩의 小曲玉形과 그리고 등에도 四個의 小曲玉形이 突起되었고 腹部라 할까 曲玉의 下部에는 큰직한 曲玉形이 突出하고 있다. 小曲玉中 잔등에 있는 四個中에서는 頭部에 있는 것이 第一 크고 尾部로 감에 따라 次次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側面에 있어서는 한쪽에서는 大小大小로 번갈아

配置되었었고 他側에서는 中央의 두개가 兩端의 두개보다 크다. 이렇게 小曲玉 또는 子曲玉들은 크기가 一定하지 않고 各者사이의 間隔도 一定하지 않다. 그리고 母曲玉의 頭部에는 穿孔이 있는데 이것은 徑 〇·七cm의 穿孔器를 써서 兩側穿孔法에 依한 것이지만 깊숙히 파진 一側穿孔의 方向이 若干 內向하여 方向全體가 斜行하게 되었기 때문에 他側에서 맞닿아 途中에서 어긋나게 맞추었지만 穿孔의 方向은 是正되고 있다.

三

母子曲玉은 日本에서는 적지 않게 發見되고 있는데 그것은 古墳뿐 아니라 祭祀遺蹟에서도 나오고 있다. 日本에서 나오는 母子曲玉은 거의 全部가 滑石製인데 日本서 滑石을 材料로 하는 石製模造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所謂 古墳中期부터이며 그 實年代는 四世紀末葉부터 五世紀前半에 걸쳐 있다. ① 滑石製 母子曲玉도 이때에 나오기 始作하는데 盛行한 것은 古墳後期 即 五世紀末頃부터 七世紀前半에 걸친 時期다.

母子曲玉의 用途나 意義에 對해서는 大場磐雄氏는 母玉에 子玉이 붙어 있는 理由로 「增殖을 祈求한 呪物」로서 祭祀, 또는 信仰上的 物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② 비록 母子曲玉이 普通보는 曲玉에서 變化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附加的意義는 妥當한 것 같다.

그런데 母子曲玉의 全形이 魚形과 같지만은 그것이 曲玉의 元來의 形態에서 出發해 魚形으로 넘어 갔으며 또 實地로 물고기로서의 意義를 附加하려고 한 것인가에 關해서는 確實히 알 수 없다. 島由貞彦氏는 「曲玉의 穿孔은 本來 懸垂用이지만 여기 母子曲玉에서는 眼孔으로도 된다」고 하고 있으며 完成된 母子曲玉이 「魚」로서도 通用되는 것을 前提로 한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다. 確實히 古代에 있어서 生鮮이 辟邪의인 呪物의 意義를 가진 것은 스키타이 遺物이나 또는 가잠계는 中國, 新羅의 裝身用 佩物 等の 例로서 알 수 있으며 母子曲玉이 그러한 뜻을 가졌다고 推測하는 것은 可能的한 일이다. 그렇지만 冷靜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魚形으로 보는 것은 그 母玉의 全形보다도 背部에 달린 子玉이 生鮮의 지느러미같은 印象을 주는 데 더 큰 原因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지느러

미같은 子玉은 잔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시피 左右兩側에도 있으며 圖(3)에서 보다시피 退化된 末期樣式에서도 嚴然하게 左右兩側에 달려 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지느러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子玉으로서 存在하는 것이며 우리가 여기에 지느러미같은 感을 느끼는것은單純한 外觀上의 印象임이 틀림없다. 結局 母子曲玉은 어디까지나 曲玉이지 魚形的인 意義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四

日本の 滑石製母子曲玉을 보면 거기에 子玉의 形態가 曲玉으로서의 元來의 形態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子玉이 退化便化해서 그 無意味한 突起物에 不過하게된 두가지의 形式이 있다. 이 境遇 前者가 形式이나 時代에 있어서 後者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分明할 것이다. 日本 母子曲玉中에서 가장 오랜 古墳—即 中期에 가까운 前期古墳 또는 前期에 가까운 中期古墳이라고 할 수 있는 大坂カトンボ(가동보) 山古墳에서 發見된 滑石製母子曲玉(註二參照)은 우리 扶餘曲玉과 酷似하며 이것을 沖ノ島(九州와 對馬島中間에 있음) 出土의 便化된 曲玉들과 比하면 그 時代가 올라갈 것이 當然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扶餘曲玉은 母子曲玉形式上 古式인 것이며 日本에서의 實年代는 上記한 바와 같이 四世紀末부터 五世紀前半에 걸친 것이다. 이 年代를 우리 曲玉에게 그대로 適用할 수 있는 지는 갑자기 明言할 수 없으나 扶餘에서 出土된 것을 보면 그 年代는 좀 위로 올려진 것 같기도 하다.

現在로서는 이 軍守里出土曲玉이 韓國에서 나온 最初의 確實한 例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滑石製母子曲玉은 日本에서 盛行하고 日本이 中心地이며 그것은 靑銅製 鈴附鏡처럼 日本에서 始作된「日本的」인 物件이라고 느껴지며 우리의 扶餘出土例를 들어 이것이 韓國에서 日本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立說하는 것은 不可能한 것 같다.

以上과 같은 背景에서 볼때 이 扶餘出土母子曲玉 그 自體가 도리어 日本에서 製作되어 百濟로 輸入되었던 物件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으며 文樣에 있어서 所謂 直弧文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古代에 있어서 南韓과 西日本사이의 文物交流의 生々한 證據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圖2, 扶餘 曲玉 實物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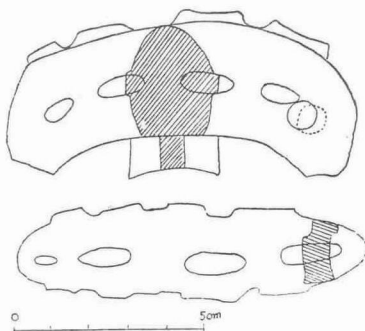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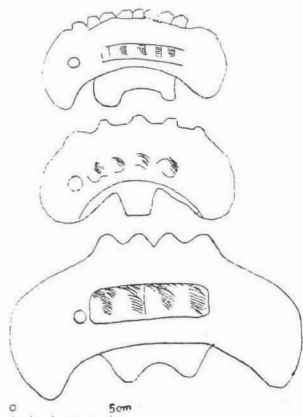


圖3, 日本沖ノ島出土 滑石母子曲玉

「沖ノ島」圖版 一〇〇



或是 이 母子曲玉이 그것을 護身用으로 차고 왔던 倭將에게서 百濟의 軍人이 멀리 任那附近에서 戰利品으로 掠奪해온 것이 아니면 白馬江口에서 싸웠다는 倭兵中의 하나가 아차하는 바람에 떨어져 드리고 간 것인 지도 모른다.

註

① 日本古墳期の 實年代는 주로 古墳에서 나타나는 鏡鑑의 年代를 根據로 하고 있는 編年이지만 首肯하기 어려운 點이 있으며 全般의 으로 보아 좀 너무 올라간 感이 있다. 이것은 그에 앞서는 日本의 彌生時代年代가 漸次 修正되어 下降되고 있는 傾向과 아울러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생각된다.

② 大場磐雄「祭祀信仰關係の 遺蹟遺物」日本文化史大系 東京 一九五六年 P. 300

③ 島田貞彦「勾玉雜考」考古學會編「鏡・劍及玉の研究」所收 P. 328